

대법원 2017도18694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6. 8.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저축은행인수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6. 8. 선고 2017도18694 판결)

☞ 2018. 6. 11. 3차 구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특별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건임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원심이 유죄 판단을 한 부분)

- 피고인은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서울레저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으로 2008. 9.경부터 사실상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지시아카데미 부동산경매투자클럽 수강생 등 116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합계 약 6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사기)
- 서울지시아카데미 부동산경매투자클럽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강생 등으로부터 약 95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을 하였음(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속이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에게 매도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음[특경법위반(사기)]
- 이미 분양을 한 아이하니 쇼핑몰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수분양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 피해 건설사에 대하여 약 70억 원을 횡령하였음(업무상횡령)
- 27억 원의 당좌수표 관련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특경법위반(사기)]
-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서 2007. 3. 2.경부터 2008. 7. 15.경까지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거나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약 106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침[특경법위반(배임)]

▣ 제1심의 판단

- 유죄, 일부 무죄
- 징역 12년 ➡ 피고인 및 검사 항소

▣ 원심의 판단

- 유죄, 일부 무죄
- 징역 10년 ➡ 피고인만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 박○○에 대하여 전북상호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특경법위반(사기): 기망 및 편취의사 여부
- ▣ 아이하니 쇼핑몰 수분양자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수분양자들의 피해 발생 여부 및 배임의 고의 여부
- ▣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손해의 발생 및 배임의 고의 여부

나. 판결 결과

- ▣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파기환송(무죄 취지)
- ▣ 나머지 부분: 피고인 상고기각(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1) 파기환송 부분

- 박○○은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는 등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최종적인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 또한 박○○은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 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박○○에게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마땅한 자료가 없음
- 은행 제시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보다 실사에 따른 자기자본이 상당 금액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실사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술상 자산차감항목인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기준에 맞추어 약 126억 원 증가시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없는 자산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숨겨진 부채나 부실대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박○○은 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규모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계약 규정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결국 박○○은 은행의 부실규모에 따른 계약해제권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주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은행을 정상화 하여 자신의 지분가치를 높이하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박○○은 은행의 부실규모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상고기각 부분

-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손해의 발생, 배임의 범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포괄일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함. 그런데 이 사건의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임